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Path Model Analysis of the Maternal Childhood Attachment, Emotion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곽소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김순옥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Researcher : Kwahk, So-Hyeon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a hypothetical path model of maternal childhood attachment, emotion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240 set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70 mother-child teams from seven counseling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hildren's Counseling Clinic, Community Social Welfare Service Center, and Welfare Service Center for the Disabled in Seoul, Incheon, and Pyeongtaek, and 170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Seoul and their mothers. Consequently, a total of 200 mother-child team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data in this study were analyzed with SPSS 12.0 program and LISREL 8.3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Examining the path of paternal attachment and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it was noted that paternal attachment had the indirect effect of anxiety and over-protection on the path to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indirect effect of anxiety also noted is that there is a full-mediation of anxiety and over-protection between paternal attachment and the internalizing problems. (2) Examining the path of maternal attachment and the internalizing problems, it was noted that maternal attachment has direct effect on the internalizing problems. Maternal attachment has the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and over-protection on the path, and the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anxiety and over-protection. (3) Examining the path of maternal attachment and the externalizing problems, it was noted that maternal attachment has direct effect on the externalizing problems and on the path to the externalizing problems, and maternal attachment has the indirect effect of depression, the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and authoritarian control, and the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maternal childhood attachment), 정서(emot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 본 논문은 주저자의 200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곽소현 (E-mail : kwaksh13@naver.com)

I. 서 론

오늘날에는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동들의 정서적인 고통과 부적응, 발달의 문제가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저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로 인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학습위주의 경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속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는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인 발달과 함께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통제와 학교생활의 적응 등 정상적인 발달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좌절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많은 문제행동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양육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주양육자인 어머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머니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어머니가 자라면서 경험한 심리적·정서적인 부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자녀가 문제행동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인간은 생애초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부모, 주변사람들에 대한 인지적 모형을 형성해 나간다. Bowlby(1973)는 이러한 인지적 모형을 '내부 작업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어릴 때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에 대한 관계의 표상이 일생동안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가능한 좋은 양육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발달단계에 맞는 경로를 따라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은 발달단계에 맞는 경로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며, 이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어머니가 어릴 때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어머니의 애착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이유이다. 어릴 때 형성된 애착은 일생동안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유지되며,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세대전이가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머니의 양육환경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또 하나의 모델은 Belsky(1984)의 '과정모델(process model)'로서, 어머

니가 과거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와 현재의 심리적·정서적인 건강이 아동의 양육의 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현재 어머니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리라 생각된다.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어머니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므로, 아동의 정서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신감으로 대하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자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서, 자녀에 대해 불안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녀를 과보호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더욱이, 근래에는 가정에 자녀가 한 두명으로 과보호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는 자녀가 자라나는 양육환경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한 경우에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리라 보며, 나아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애착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애착의 세대전이(전효정, 2003; Bretherton, 1991), 낯선 상황에서 유아의 애착측정(Ainsworth et al., 1978), 애착분류(장휘숙, 1997), 애착척도개발(George et al., 1985)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된 정서, 양육행동, 자녀의 적응이나 문제행동 등을 연결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고(Adam et al., 2004), 일반군의 아동들뿐만 아니라, 문제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유한익, 2004), 면접을 통해 애착의 내적표상을 찾아보고, 애착과정을 추적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김혜연, 1999; Dozier, 199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어릴 때 형성된 내부 작업모델은 일생동안 잘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불안정 애착의 자녀로 세대전이하여 가는 과정에서 매개나 중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안으로 찾는 것에 대한 시도는 그동안 많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현재의 심리·정서적인 개인변인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이론모델은 있으나(Bowlby, 1973; Belsky, 1984), 완전모델(full model)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매개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머니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 형성된 애착과 비슷한 형태로 자녀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배운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가 자라온 과거의 환경이 현재 어머니의 정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어렸을 때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공허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동일시하여 자신이 충족하지 못한 정서들을 자녀를 통해 해결하려다 보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기가 어려우며, 불안으로 인해 과보호하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어, 자신의 자녀인 아동에게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과거특성인 부모와의 경험, 크게 세 부류로 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애착, 자아분화, 양육행동 등을 들고 있다.¹⁾ 어머니의 현재특성을 양육행동,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부분인 우울, 인성, 정서 등으로 본 연구들이 있다.²⁾ 또한 어머니의 과거특성과 현재특성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발달 및 정신병리, 적응 및 사회불안, 애착의 세대전이, 그리고 양육행동 등을 들 수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어릴 때 경험한 애착을 과거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을 현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과거특성인 아동기 애착이 현재특성인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의 매개를 통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과거에 어머니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해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어머니의 정서나 양육행동의 매개요인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현재의 정서,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의 연속적인 과정을 완전모델(full model)의 검증을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감소와 건강한 양육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어머니의 정서

요즈음은 어머니의 현재 정서나 인성부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어머니의 애착과정을 추적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Dozier, 1990), Collins와 Read(1990)는 불안정한 애

착관계형성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애착은 항상 정서가 동반되는데, 정서와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나, 통합과 같은 자아기능(ego functions)은 초기에 부모와 안정애착일때 더욱 잘 발달한다고 하였다(Bellak et al., 1973; 이민희 역, 2005, 재인용). 또한 불안정 애착은 우울증 및 정서적인 불편함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Kobak & Hazan, 1991).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과 불안의 정서를 보인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이 우울, 불안과 매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착유형에 따라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안정애착유형이 회피애착, 불안/양가 애착유형보다 자아존중감, 자기개념이 높다고 하였다(김선희·오경자·박중규·이은정, 2001; 장휘숙, 1997; Lopez et al., 200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질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보다 자아존중감의 예측력이 크다고 하였다(Burke & Weir, 1978).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라, 어머니 자신이 불안, 분노, 우울 등과 같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안정 애착유형 중에서, 무시형(dismissing type)의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우울정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몰입형(preoccupied type)의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분노가 나타났다고 하였다(Adam et al., 2004).

또한 불안정 애착집단이 안정 애착집단보다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우울이나 불안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opez et al., 2001). 그러나 애착유형보다는 애착의 안정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며, 특정 애착유형과 관계없이 불안정애착일 때, 우울증과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bak et al., 1991). 우울증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때 부정적인 양육의 경험들이 발달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Jacobson et al., 1975; Raskin et al., 197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어머니의 정서가 매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서 중에, 자아존중감과 우울, 불안이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준다.

2.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Ainsworth 등(1978)은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를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이라는 포괄적인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아동기에 애착을 잘 형성한 어머니는 아동을 잘 지원해주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을 덜 하며, 자녀가 심리적인

1) 정문자·전연진·김진이, 2004; 정미경, 2003; Deklyen, 1992
2) 유우영, 1998; 전현진, 1997; Whiffen, Kerr & Kallos-Lilly, 2005
3) 강차연, 1999; 최정미, 1999; Volling, Notaro & Larsen, 1998

문제로 치료받는 일이 적었다(Crowell & Feldman, 1988). 전효정(2003)은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연구에서, Bowlby (1973)의 주장과 같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지했다. 아동에게 부당한 대우나 방임을 하는 부모는 자신의 원가족에게서 부당한 대우와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다(Altemier et al., 1982; 박성연 등 역, 1996, 재인용).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을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으로 구별하여 시행한 연구에서, 과거에 아버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합리적 지도,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를 나타내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권위주의적 통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승, 2000).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Belsky(1984)는 어머니의 발달사가 아동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는, 보통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유형 가운데, 무시형(dismissing type)일 때, 우울을 매개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몰입형(preoccupied type)일 때, 분노를 매개로 침투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 et al., 2004).

한편,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상집단과 임상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단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차연, 1999).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양육행동간에는 어머니의 심리적·정서적인 기능을 매개로 일어나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양육행동 간에 어머니의 정서가 매개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안정애착인 어머니가 거의 없었으며(Crowell & Feldman, 1988; Deklyen, 1992),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회피형일 때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ffen et al., 2005).

이현미(1996)는 어머니가 어릴 때 경험한 애착의 전이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을 구별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어릴 때 형성된 어머니 애착이 자녀의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나, 아버지 애착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아 어머니 애착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애착이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의 비교한 연구에서 임상집단의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유형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연, 1999; 이경숙·신의진·김혜연, 1999).

한편 불안정애착이 안정애착보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지만, 불안정애착 내에서의 유형 간 차이는 없다고 하여, 애착유형보다는 애착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Goldberg, 2000). 문제행동의 수준에 따라 임상 범주와 비임상 범주로 나누어서 비교했을 때, 자신의 부모와 불안정애착인 부모들은 안정애착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주의집중 문제가 더 심각했으며,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애착에 대한 영향은 임상범주 아동에게 더 크게 나타났지만, 임상범주나 비임상범주 아동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한익, 2004). 임상 아동집단과 정상 아동집단을 비교한 연구결과, 각각 90%, 55%의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유형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Crowell & Feldman, 1988, 1989).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강차연, 1999), 임상집단의 어머니들에게 불안정애착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집단보다 임상집단 어머니들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자녀의 신체증상, 공격성, 정서 불안정,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정상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정상집단의 어머니들은 애착유형이 불안정하더라도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완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부모의 애착과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경로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예언변인이 된다고 하였다(Cowan et al., 1996).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경로탐색을 한국과 미국집단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

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어머니의 우울감을 통하여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기때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한 결과, 외생변인인 아동기때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양육행동 등을 통하여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아·이재신, 2004). 이와같이 어머니의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애착유형보다는 애착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애착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어머니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이나 양육행동을 매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어머니의 정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Belsky(1984)는 양육행동 결정모델에서 어머니의 여러 가지 사회배경적인 부분과 발달사를 결려주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는데, 어머니의 발달사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개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정서나 정서적 위축은 일종의 장애로서 양육기능이나 아동의 발달을 예측한다고 지적하고 있다(Kokes et al., 1980).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며(박성연 등 역, 1996), 위협요소가 많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통합성이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였다(Brunnquell et al., 1981).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는 불안하고 우울하며, 적대적이고, 자아강도(self strength)가 낮은 개인적 성향을 나타낸다(Watson & Tellegan, 1985).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는 양육행동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부모의 불안, 우울, 적응, 통제의 소재 등이 아동에 대한 애정과 민감한 반응 및 부모역할을 예측해 준다(Cox et al., 1989). 우울증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과 양육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몰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우울증세 때문에, 아동의 요구에 따듯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Bettes, 1988; Crnic & Greenberg, 1985). 또한 Lovejoy(1991)는 우울증인 어머니들이 비우울증인 통제집단의 어머니들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였지만, 이러한 행동이 전체의 특성은 아니었으며, 다수는 통제집단

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이춘재 역, 1998, 재인용). 이와 같이 우울이 부정 정서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부적응이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상이 심하여 손상된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더욱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Fendrich et al., 1990).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우울이 높을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하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이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경, 2003). 어머니의 불안이 높을수록 통제적, 거부적,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경숙, 1997).

한편,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말하고 있으며(이희자, 1993), 다른 선행연구(Belsky & Isabella, 1988)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머니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부정적인 정서인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과보호의 양육행동을 하였으며, 온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였다. 또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정서와 아동의 문제행동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 등을 유발하게 된다(Bear-dslee et al., 1983). 어머니의 특성불안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데, 특히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많았다(고인숙, 1998). 우울한 어머니의 아동들은 공격적이고, 정서조절과 충동조절의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이 잘 안되며, 내재화 또는 외현화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Zahn-Waxler et al., 1984).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우울의 유무에 더 관심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임상적인 진단에는 못 미치는 우울증상, 즉 비임상적 수준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Sherbourne et al., 1994; 김은정·권정혜, 1998, 재인용). 우울 수준에 따라, 비임상적 수준인 우울집단과 우울증 진단이 가능한 우울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대인관계와 관련한 부적응이나 역기능적인 인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김은정·권정혜, 1998). 연구자는 우울점수가 높아도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비임상 수준의 우울집단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만성적인 우울상태로 적용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지에 대한, 한국집단과 미국집단의 비교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순서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해주었으며, 한국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이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한영옥·김문혜, 2003),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오히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심리적 안녕감 속에 있을 수 있는 주장성, 독립성, 지배성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이 아동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하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자율성, 유능감 같은 심리적인 안녕감의 요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미경, 2003),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가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애정적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선희·김경연, 1999). 불안, 적대/반항적 장애, 혹은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임상집단의 어머니가 정상집단의 어머니보다 우울, 불안, 신체화장애, 건강염려증 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김혜연, 1999; 이경숙 등, 1996).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는 부모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했을 때,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불안장애의 유병률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어서(Anderson & Hammen, 1993; Warner & Weissman, 1995), 어머니의 우울이나 정신장애가 반드시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아동에게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많은 관련성이 있다. 정서장애가 동반된 만성 동통, 자살사고, 우울 등을 경험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은 돌봄의 부족과 과잉보호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Gamsa, 1990; Salter & Brook, 1983).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어머니 양육행동을 크게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왕혜옥, 2003; 이원영, 1983).

한편, 한민경(2003)은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에게 일관적인 한계를 정해줄수록 아동이 불안, 위축행동을 적게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 및 활동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줄수록 아동은 분노,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부적상관의 결과가 나와, 긍정적인 측면의 반응성이 아동으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을 야기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 불안, 분노, 공격적 행동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정적이지 않고,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응 및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묘연·오강섭·이시형, 1998). 민주·자율적이고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보다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적대적이고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철웅, 2002).

권위주의적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등의 비행에 영향을 주며(심선보, 2000), 부모가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일때, 아동이 반항적, 수동적이 되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일때 아동이 반사회적이며, 공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영숙, 1988).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과잉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예측하였다(Pettit et al., 1991).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중 과보호는 자녀의 우울, 불안, 적대감, 강박, 편집증 등의 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오동재·전성일·장환일, 1993), 과보호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자녀가 불안, 우울 및 건강염려증이 높다고 하였다(Parker, 1979; Parker & Lipscombe, 1981). 또한 어머니가 과보호와 거부적인 양육태도일 때, 아동에게 내재화 문제, 정서불안이 있다고 하였으며(염숙경·이영미,

1999; Baldwin, 1949). 즉,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이나 비행같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며, 돌봄이나 과보호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적대적인 행위는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orris et al., 2002).

양육태도의 하위범주를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차원, 애정/성취차원, 합리차원, 애정차원은 각각 아동에게 과잉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부모가 통제적일수록 아동이 과잉행동을 보이고, 비합리적일수록 공격행동을 보이며, 적대적일수록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성희, 2002). 내재화 문제집단과 외현화 문제집단의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 모두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집단별 차이를 보면, 내재화문제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돌봄은 낮고, 과보호는 높게 지각하였으며, 외현화 문제 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돌봄은 낮게 지각하였으나, 과보호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문미영,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이나 문제행동 간의 매개효과와 경로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양육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양육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이 밝혀졌으며, 과보호나 거부,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저해한다고 하였다(유우영, 1998).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애정, 수용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은 있지만,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더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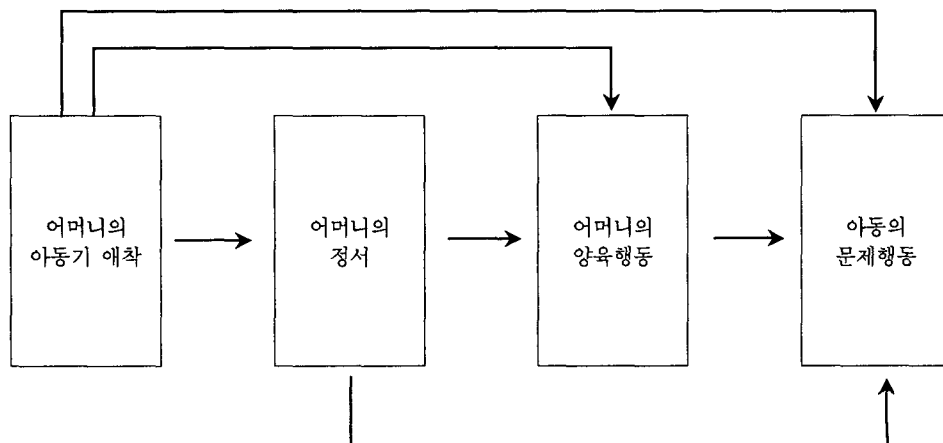
1. 연구목적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정서,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검증은 통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영향과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매개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경로에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설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평택시의 아동상담클리닉,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의 상담실에 정서, 사회성, 행동 등의 문제로 내원한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70쌍, 서울시의 2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200

변인	내용	빈도(백분율)	변인	내용	빈도(백분율)
아동의 성별	남 아	102(51.0)	아동의 나이	만 6~7세	9(4.5)
	여 아	98(49.0)		만 8~9세	50(25.0)
아동의 학년	1~3학년	59(29.5)		만 10~11세	99(49.5)
	4~6학년	141(70.5)		만 12~13세	42(21.0)
어머니의 나이	만 35세 이하	44(22.0)	아동의 형제순위	첫 째	117(58.5)
	만 36~40세	107(53.5)		둘 째	53(26.5)
	만 41~45세	44(22.0)		셋 째	10(5.0)
	만 46세 이상	5(2.5)		의 동	20(10.0)
어머니의 종교	기독교	72(36.0)		어머니의 교육수준	초·중학교 졸업
	천주교	30(15.0)	고등학교 졸업		110(55.0)
	불 교	37(18.5)	전문대학 졸업		24(12.0)
	무 교	59(29.5)	대학교 졸업		46(23.0)
	기 타	2(1.0)	대학원 졸업		8(4.0)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117(58.5)	결혼상태	기 혼	177(88.5)
	비숙련직	24(12.0)		이 혼	11(5.5)
	숙련직	13(6.5)		별 거	4(2.0)
	자영업	14(7.0)		동 거	6(3.0)
	판매직	5(2.5)		사 별	2(1.0)
어머니의 직업	사무직/관리직	12(6.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4(7.0)
	전문직	15(7.5)		100~199만원	46(23.0)
				200~299만원	70(35.0)
				300~399만원	33(16.5)
				400~499만원	15(7.5)
		500만원 이상		22(11.0)	

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170쌍을 대상으로 총 240쌍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아동의 자료수집은 하지 않았다. 아동과 어머니의 설문지 총 240쌍 중 215쌍을 회수하였으며(90%), 이 중에 응답이 부실한 15쌍을 제외하고, 아동과 어머니 총 200쌍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어머니용 설문지와 아동용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어머니의 정서,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용 설문지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즉 자녀의 성별, 학년, 나이, 형제순위, 어머니의 나이,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직업, 월수입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92)의 Adult Attachment Scale을 Jeon(1994)이 번안하여 사용한 21문항을 16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점 Likert 척도를 4점 Likert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응답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매우 그러했다(4점)'이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16~64점이며, 부정형 문항(2, 3, 5, 6, 8, 11, 13, 15번)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안정, 불안, 회피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의 Cronbach's α 는 각각 .86 이다.

2) 어머니의 정서

(1)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Jon(197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며, 긍정형 문항(1, 2, 4, 6, 7) 5개와 부정형 문항(3,

5, 8, 9, 10)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척도이다. 긍정형 문항은 '매우 그렇다(4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0~40점이며, 부정형 문항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만족감, 실패감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중감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g, 1965). 자아존중감은 보편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Well & Marwell, 1976),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호, 불호를 느끼는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므로 더 적절하다는 주장(Coopersmith, 1967; Rosenberg, 1965)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이란 정서적 의미가 포함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2) 우울

어머니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전경규와 이민규(1992)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전혀 없는 편이었다(0점)~대부분 있었다(3점)'로 가능한 점수는 0~60점이며, 3개의 긍정형 문항(5, 10, 15)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우울은 두려움, 슬픔, 무기력감 같은 우울정서와 신체저하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다.

(3) 불안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66)가 제작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것으로, 상태불안 20문항과 특성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은 '지금-현재'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반면에, 특성불안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7개의 긍정형 문항(1, 6, 7, 10, 13, 16, 19)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2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개발한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척도는 7개 하위척도(① 애정 ② 권위주의적 통제 ③ 과보호 ④ 일관성있는 규제 ⑤ 적극적인 참여 ⑥ 합리적 지도 ⑦ 성취)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보고용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행동인 과보호 9문항과 권위주의적 통제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 보고용을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점 Likert척도이며, '매우 그렇다'(4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각각 9~36이다. 과보호는 아동에게 지나친 관심, 간섭, 뒷바라지 등을 해주는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을 과보호하려는 태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 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며, 아동을 무시하고,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과보호와 권위주의적 통제의 Cronbach's α 는 각각 .73과 .71이다.

4)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를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사회능력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 중에서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의 내재화 문제 31문항과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 33문항이다. 이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자주 그렇다(2점)'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한 원점수의 범위는 0~128점이며, K-CBCL의 모든 하위척도들의 원점수는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하였다⁴⁾. 원점수 대신에 표준점수인 T점수를 사용한 이유는, 응답자들의 원점수가 규준집단의 점수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

4)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원점수와 T점수 규준표

원점수	0	5	10	15	20	25	30	35	40	45
내재화 T점수	33	50	57	62	68	72	74	82	83	91
외현화 T점수	31	47	54	60	65	70	74	82	83	91

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을 선별(screening)하기 위해,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의 T점수 60점(85%ile)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Cronbach's α 는 각각 .89와 .86이다.

5.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척도의 타당도는 관련 전공교수 5인으로부터 세 차례 문항과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신뢰도, 소요시간에 대한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내용의 이해가 어렵거나, 불분명하다고 보고한 문항과 측정 의도와 다르게 이해되는 문항을 선별한 후에 수정, 삭제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과 어머니의 설문지는 총 240쌍 중 215쌍을 회수하였으며(90%), 이 중에 응답이 부실한 15쌍을 제외한 총 200쌍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반아동과 상담실에 내원한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나, 일반군과 문제군으로 분류하여 경로모형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연구가 아동기에 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행동으로 제한하였고, 정신지체나 발달장애가 있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표집하지 않았으며,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량적인 높고, 낮은 수준을 골고루 표집하기 위하여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내원한 아동을 포함시켰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과 LISREL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은 빈도분석으로 빈도, 백분율을 구했으며, 기술통계분석으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가설모형설정 초기과정에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과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적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8.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가 아동기에 경험한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정서,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의 평균은 각각 42.82(SD=7.73)와 44.91(SD=8.03)로, 어머니 애착이 좀 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정서의 하위변인별 평균을 보면,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여,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전유경, 2003)의 평균 26.2(SD=7.3)보다 높은 점수이다.

우울은, CES-D 평균이 18.71(SD= 10.35)로서,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정희, 1999)의 CES-D 평균 16.51(SD=8.56)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며,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전경구·이민규, 1992)의 CES-D 평균 30.69(SD=12.37) 보다는 매우 낮은 점수이다. 불안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백기청·홍강의, 1987; 한덕웅·이장호·전경구, 1996)에서 각각 STAI 평균 44.42와 43.74(SD=7.64)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변인별 평균을 보면, 과보호는 21.61(SD= 4.89)이며, 권위주의적 통제는 19.79(SD=4.69)로서, 박성연·숙(1990)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 연구에서, 과보호의 평균이 19.89~34.38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의 평균이 18.72~29.79로 과보호의 점수분포가 권위주의적 통제보다 좀더 높게 나온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한 점수이며, 아동의 문제행동의 평균은 내재화 문제가 52.77(SD=10.01)로 외현화 문제 46.56(SD=11.0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K-CBCL 척도를 사용한 연구(유한익, 2004)의 T점수 평균, 내재화 문제 55.44와 비슷하며, 외현화 문제 55.20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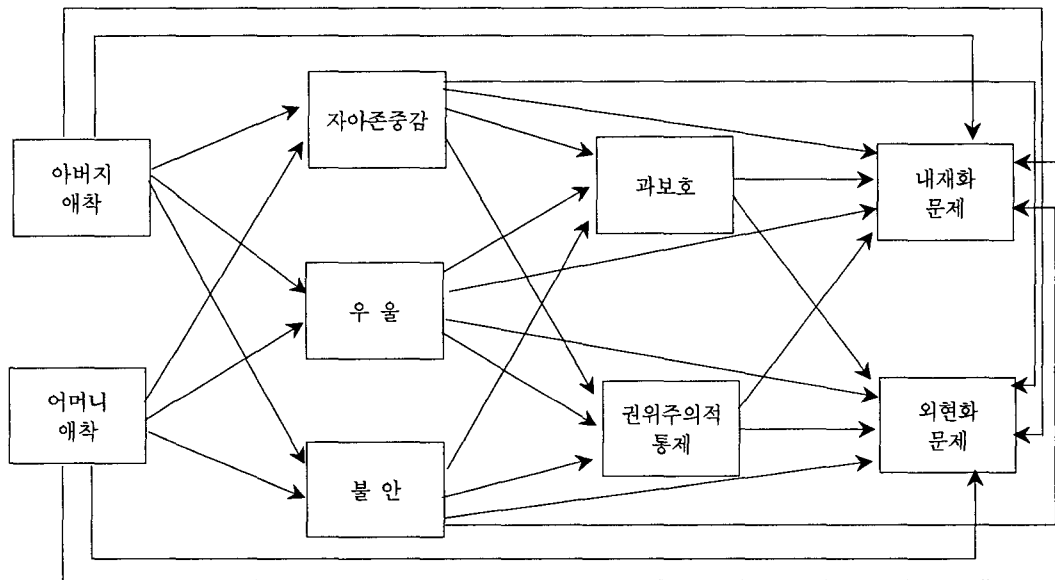
2.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경로모형 검증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LISREL 8.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2> 측정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00

변인	가능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SD)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아버지 애착	16~64	42.82
	어머니 애착	16~64	44.91
어머니의 정서	자아존중감	10~40	29.38
	우울	0~60	18.71
	불안	20~80	45.00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보호	9~36	21.61
	권위주의적 통제	9~36	19.79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33~91	52.77
	위축		56.48
	신체증상		52.38
	우울/불안		50.87
	외현화 문제	31~91	46.56
	비행		48.00
	공격성		46.70



<그림 2> 가설모형

1) 가설 모형

가설모형은 먼저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가능한 관계를 모두 고려한 경로도를 선택하였다(<그림 2>). 검증절차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가설경로를 파악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그림 1>)에서 가설모형(<그림 2>)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설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가설모형(<그림 2>)에서 어머니의 아동기애착이 양육행동으로 직접 가는 경로를

제외하였다. 즉, 가설모형(<그림 2>)에서는 외생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내생변수인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외생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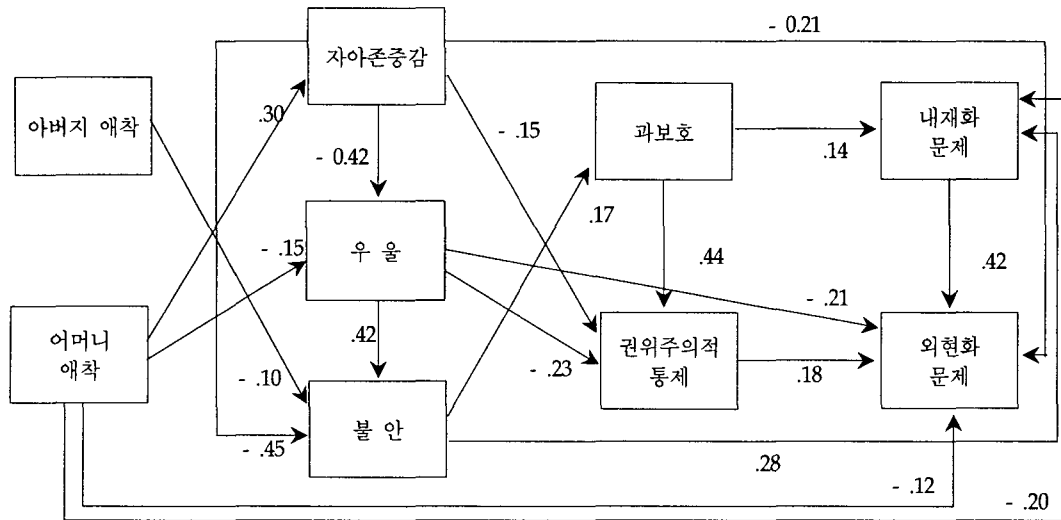
또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정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은 각각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외생변인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을, 내생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외생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다음, 가설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모

<표 3> 가설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χ^2	df	p값	RMSEA	ECVI	AIC	GFI	AGFI	RMR	NFI	NNFI
가설모형	244.01	9	.00	.35	1.54	303.28	.80	0	.15	.60	0



<그림 3> 수정모형

형 구축의 첫 단계로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 유무를 판단하였는데, 측정변수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가 추정 모수의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t값을 고려하였는데, $p < .05$ 유의수준에서 $|t| \geq 1.96$ 이어야 한다(배병렬, 2004).

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이론모델에 대한 경로모형 분석이 주목적이므로,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를 측정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별도의 측정모델 구성은 하지 않았다. 적합도는 연구모형과 실제 공분산자료를 이용하여 모형간 일치(consistency)하는 정도를 보게 된다.

검증 방법 중에 먼저 X^2 검정을 해 볼 수 있는데, X^2 값이 크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는 것(poor fit)을 의미한다(이순목, 1990). 그러나 이 통계량은 자유도(df)에 민감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df)와 비교하여 그 적합도를 평가하였고, 기타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표준화 잔차를 통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표준화 잔차에서 2.58이상 되는 값이 여러 개 존재하면 모형은 적합하지 않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경로계수의 추정치인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하나 이상의 다른 변수들을 거쳐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 및 총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경로분석을 병행하였다.

가설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설모형의 경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가 244.01로, 자유도(df) 9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p값도 .0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와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 RMSEA)은 보통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이고,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는데(Browne & Cudeck, 1993), 가설 모형에서 RMSEA값이 .35로 큰 값을 보이고 있어서 적합도가 좋지 않다. NFI(normed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 등이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는데(조선배, 1996), NFI와 NNFI가 각각 .60과 0으로 나와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합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와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데(배병렬, 2004), GFI와 AGFI가 각각 .80과 0으로 적합도가 좋지 않다.

또한 ECVI와 AIC도 적합도 지수가 높아, 초기가설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것은 가설모형 설정과정에서 선행연구들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에서도 어머니의 정서, 양육행동, 문제행동의 각 하위 변인들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모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표 4> 가설모형의 경로

가설모형 경로	경로계수(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t값
아버지 애착 → 자아존중감	.15	.078	1.89*
어머니 애착 → 자아존중감	.23	.078	2.91*
아버지 애착 → 우울	-.11	.079	-1.36*
어머니 애착 → 우울	-.23	.079	-2.88*
아버지 애착 → 불안	-.19	.076	-2.53*
어머니 애착 → 불안	-.23	.076	-3.05*
자아존중감 → 과보호	-.01	.071	-.08*
우울 → 과보호	.07	.071	.94*
불안 → 과보호	.12	.071	1.72*
자아존중감 → 권위주의적 통제	-.15	.063	-2.45*
우울 → 권위주의적 통제	-.23	.063	-3.60*
과보호 → 권위주의적 통제	.44	.064	6.86*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	.002	.069	.04*
우울 → 내재화 문제	-.03	.069	-.42*
불안 → 내재화 문제	.30	.069	4.34*
과보호 → 내재화 문제	.13	.072	1.73*
권위주의적 통제 → 내재화 문제	.05	.072	.67*
아버지 애착 → 내재화 문제	-.01	.076	-.15*
어머니 애착 → 내재화 문제	-.19	.079	-2.46*
자아존중감 → 외현화 문제	-.22	.069	-3.22*
우울 → 외현화 문제	-.20	.069	-2.91*
불안 → 외현화 문제	.09	.069	1.22*
과보호 → 외현화 문제	.04	.072	.61*
권위주의적 통제 → 외현화 문제	.21	.072	2.90*
아버지 애착 → 외현화 문제	-.06	.076	-0.84*
어머니 애착 → 외현화 문제	-.18	.079	-2.24*

*p<.05

<표 5> 수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X ²	df	p값	RMSEA	ECVI	AIC	GFI	AGFI	RMR	NFI	NNFI
수정모형	9.85	17	.91	.00	.03	65.67	.99	.97	.03	.98	1

<표 6>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지수	X ²	df	p값	RMSEA	ECVI	AIC	GFI	AGFI	RMR	NFI	NNFI
가설모형	244.01	9	.00	.35	1.54	303.28	.80	.00	.15	.60	0
수정모형	9.85	17	.91	.00	.03	65.67	.99	.97	.03	.98	1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결과,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낮게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형 수정과정은 경로값 중 T값이 작은 경로를 제거하고, 전체 적합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모수(경로계수) 추정치중 |t| 값이 가장 낮은 경로인 자아존중감→과보호(t=-.08, p<.05), 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t=.04, p<.05)를 제거한 후, 적합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반복수행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2) 수정 모형

가설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이론적·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추가한 수정모형이 <그림 3>과 같으며, 숫자는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수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표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하면, X²가 9.85(df=1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으며, 특히 p값이 .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이 되었다. 또한 RMR(root mean squared

<표 7> 표준화 잔차 검증

	자아 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아버지애착	어머니애착
자아 존중감	-								
우울		-							
불안	- 1.87	1.35	1.92						
과보호	- .12	.74	1.92	1.92					
권위주의적 통제	- .12	.74	- .45	- .55	- .55				
내재화 문제	- .14	- .29	1.31	- .86	.65	.14			
외현화 문제	- .16	- .13	- .22	- .53	.47	.58	.50		
아버지 애착	1.87	- 1.35	- 1.92	.85	.83	- .37	- .77	-	
어머니 애착	-	-	- .70	.92	- .22	.12	- .13	-	-
Smallest Standardized Residual				=	- 1.92				
Median Standardized Residual				=	.00				
Largest Standardized Residual				=	1.92				

<표 8> 수정모형의 경로

수정모형 경로	경로계수(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t값
어머니 애착 → 자아존중감	.30	.068	4.41*
자아존중감 → 우울	- .42	.065	- 6.52*
어머니 애착 → 우울	- .15	.065	- 2.35*
자아존중감 → 불안	- .45	.050	- 9.10*
우울 → 불안	.42	.050	8.51*
아버지 애착 → 불안	- .10	.045	- 2.21*
불안 → 과보호	.17	.071	2.40*
자아존중감 → 권위주의적 통제	- .15	.072	- 2.17*
우울 → 권위주의적 통제	- .23	.071	- 3.19*
과보호 → 권위주의적 통제	.44	.064	6.86*
불안 → 내재화 문제	.28	.069	4.06*
과보호 → 내재화 문제	.14	.065	2.22*
어머니 애착 → 내재화 문제	- .20	.067	- 2.95*
자아존중감 → 외현화 문제	- .21	.068	- 3.07*
우울 → 외현화 문제	- .21	.068	- 3.02*
권위주의적 통제 → 외현화 문제	.18	.059	3.08*
내재화 문제 → 외현화 문제	.42	.062	6.69*
어머니 애착 → 외현화 문제	- .12	.063	- 1.90*

*p<.05

residual)이 많이 낮아졌으며, 모델 비교 지수인 ECVI, AIC이 가설모형보다 매우 낮아져 수정모형이 바람직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GFI와 AGFI가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NFI와 NNFI도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RMSEA도 .05보다 작아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좋음을 알 수 있다.

자유도(df)가 X²보다 높아 더 많은 모수를 추가 할 수도 있으나, 본 모형에서 고려된 모수 외에 다른 모수(경로계수)를 추가할 경우 전체 적합도가 개선되지 않으며, 모수의 통계량도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인 표준화 잔차를 분석하면 <표 7>와 같다. 표준화 잔차는 잔차행렬

(residual matrix)의 각 원소들을 표준화(normalize)한 것으로, 표준 차이의 값이 2.58보다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순목, 1990). 표준화 잔차가 모두 2.58보다 작으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Q-plot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 Q-plot 기울기가 1(45°)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않고, 1에 가까우면 적합도가 적절하며, 1보다 크면 적합도가 매우 좋은데 (이순목, 1990), 본 연구의 Q-plot은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부분 적합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수정 모형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으며, 모형분석에 사용된 공분산 행렬은 <표 9>에 제시하였다. 수

<표 9> 수정모형에 대한 공분산 행렬

	1	2	3	4	5	6	7	8	9
	self	dep	anxiety	over	authorit	in	ex	fattach	mattach
1	1.000								
2	-.470	1.000							
3	-.669	.652	.983						
4	-.114	.111	.167	1.000					
5	-.097	-.107	.028	.428	1.007				
6	-.263	.254	.360	.201	.071	.999			
7	-.277	.013	.198	.169	.256	.468	.991		
8	.150	-.140	-.226	-.038	-.008	-.168	-.134	1.000	
9	.300	-.280	-.305	-.052	-.005	-.292	-.248	.500	1.000

정모형을 분석하면, 각 경로계수의 t값은 어머니 애착 → 외현화 문제($t = -1.90, p < .05$)를 제외하고 모두 $1.96(p < .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에 나타난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계수(표준화 추정치)가 $.30 (t = 4.41, p < .05)$ 이며,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이 고정되었을 때, 어머니 애착이 한 단위 증가하면 자아존중감이 3배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자아존중감이 $-.42(t = -6.52, p < .05)$ 로, 어머니 애착이 $-.15 (t = -2.35, p < .05)$ 로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애착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45(t = -9.10, p < .05)$ 로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며, 우울은 $.42(t = 8.51, p < .05)$ 로 불안에 강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애착은 $-.10(t = -2.21, p < .05)$ 으로 불안에 약한 정도의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이 $.17(t = 2.40, p < .05)$ 으로 과보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불안이 높아지면, 과보호의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15(t = -2.17, p < .05)$ 로, 우울이 $-.23(t = -3.19, p < .05)$ 으로 권위주의적 통제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 $.28(t = 4.06, p < .05)$ 로, 과보호가 $.14(t = 2.22, p < .05)$ 로 내재화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어머니가 불안과 과보호의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자녀에게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애착은 $-.20(t = -2.95, p < .05)$ 로 내재화 문제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21(t = -3.07, p < .05)$ 로, 우울은 $-.21(t = -3.02, p < .05)$ 로, 어머니 애착은 $-.12(t = -1.90, p < .05)$ 로 외현화 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통제는 $.18(t = 3.08, p < .05)$ 로, 내재화 문제는 $.42(t = 6.69, p < .05)$ 로 외현화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높게 하며,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면 외현화 문제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어떻게 매개하는지와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의 직접·간접효과에 대한 것을 <표 10>에 제시하였으며, 표에 제시한 숫자는 표준화 추정치를 말한다.

그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 애착은 불안에 직접효과가 있고, 과보호, 권위주의적인 통제,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은 자아존중감, 우울,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우울, 불안, 과보호,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어머니의 정서에 대해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 권위주의적 통제,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우울은 불안, 권위주의적 통제,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불안은 과보호, 내재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권위주의적 통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과보호는 권위주의적 통제, 내재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외현화 문제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권위주의적 통제는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재화 문제는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표 10>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 변인들의 직접·간접효과

변 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결과변수	설명변수			
자아존중감	어머니 애착	.30*		.30*
우 울	자아존중감	-.42*		-.42*
	어머니 애착	-.15*	-.13*	-.28*
불 안	자아존중감	-.45*	-.18*	-.63*
	우 울	.42*		.42*
	아버지 애착	-.10*		-.10*
과보호	어머니 애착		-.26*	-.26*
	자아존중감		-.11*	-.11*
	우 울		.07*	.07*
	불 안	.17*		.17*
권위주의적 통제	아버지 애착		-.02*	-.02*
	어머니 애착		-.04*	-.04*
	자아존중감	-.15*	.04*	-.11*
	우 울	-.23*	.03*	-.20*
	불 안		.07*	.07*
내재화 문제	과보호	.44*		.44*
	아버지 애착		-.01*	-.01*
	어머니 애착	.00*		.00*
	자아존중감		-.19*	-.19*
	우 울		.13*	.13*
	불 안	.28*	.02*	.30*
외현화 문제	과보호	.14*		.14*
	아버지 애착		-.03*	-.03*
	어머니 애착	-.20*	-.08*	-.28*
	자아존중감	-.21*	-.01*	-.22*
	우 울	-.21*	.02*	-.19*
	불 안		.14*	.14*
	과보호		.14*	.14*
권위주의적 통제	권위주의적 통제	.18*		.18*
	아버지 애착		-.01*	-.01*
	어머니 애착	-.12*	-.12*	-.24*
	내재화 문제	.42*		.42*

*p<.05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Holmbeck, 1997).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면, 완전매개(full mediation)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수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를 하는 것이다(Holme & Smith, 1994).

구체적으로 경로에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 애착과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경로를 살펴보면, 아버지 애착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애착은 내재화 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불안과 과보호를 통한 간접효과와 불안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다(-.03, p<.05). 따라서, 아버지 애착과 내재화 문제 간에 불안과 과보호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 애착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총효

과는 -.03(p<.05)이다.

또한 아버지 애착이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으며(-.01, p<.05), 아버지 애착과 외현화 문제 간에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애착과 외현화 문제 간에 불안과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 애착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총효과는 -.01(p<.05)이다.

둘째, 어머니 애착과 내재화 문제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은 내재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20, p<.05). 또한 어머니 애착은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불안과 과보호를 통한 간접효과도 있었다(-.08, p<.05). 따라서, 어머니 애착과 내재화 문제 간에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가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 애착이

내재화 문제에 대한 총 효과는 $-.28(p<.05)$ 이다. 이는 어머니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20, p<.05$),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가 매개되었을 때, 내재화 문제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8, p<.05$). 어머니 애착과 외현화 문제 관계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은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12, p<.05$). 또한 어머니 애착이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 자아존중감과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우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다($-.12, p<.05$). 따라서, 어머니 애착과 외현화 문제 간에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가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 애착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총효과는 $-.24(p<.05)$ 이다. 이는 어머니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12, p<.05$),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인 통제가 매개되었을 때, 외현화 문제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4, p<.05$).

결과적으로, 외생변수인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이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매개하여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화 문제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직접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42,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과거특성인 아동기 애착과 현재특성인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가설적 경로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검증절차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가설경로를 파악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을, 내생변수로 어머니의 정서,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잠재변수로 가정하여 구성하였다. 가설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이론적·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추가한 수정모형 경로도를 구성하였으며, 수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높아,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정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로에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 애착과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경로를 살펴보면, 아버지 애착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애착은 내재화 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불안과 과보호를 통한 간접효과와 불안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어서, 아버지 애착과 내재화 문제 간에 불안과 과보호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애착이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으며, 아버지 애착과 외현화 문제 간에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 애착과 내재화 문제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은 내재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은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불안, 과보호를 통한 간접효과도 있었다. 또한 우울, 불안, 과보호를 통한 간접효과도 있어서, 어머니 애착과 내재화 문제 간에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가 부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 애착과 외현화 문제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 애착은 외현화 문제에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어머니 애착이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 자아존중감과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우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 애착과 외현화 문제 간에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가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해보면, 외생변수인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이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매개하여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이 과보호,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고, 어머니 정서인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Belsky(1984)가 어머니의 발달사가 아동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을 매개로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Bowlby(1973)가 과거에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어머니의 문제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하여 세대전이가 일어난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정상 아동집단과 임상 아동집단 모두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강차연, 1999)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인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이 매개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과 불안의 정서를 보인다고 했으며, 안정애착의 경우 자아존중감, 자기개념이 높다고 한 연구들(김선희 등, 2001; 장휘숙, 1997; Lopez et al., 2001)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Collins와 Read(1990)는 불안정한 애착관계 형성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어머니 정서의 하위변인인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이 서로 직접, 간접영향을 주면서 매개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애착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애착이 내재화·외현화 문제의 예언변인이 된다는 것(Cowan et al., 1996)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 과보호가 내재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보호가 자녀의 우울, 불안 등의 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오동재 등, 1993), 과보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불안, 우울 및 건강염려증, 내재화문제가 높다고 한 연구들(염숙경·이영미, 1999; Baldwin, 1949; Parker, 1979; Parker & Lipscombe, 198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양육행동 중에 권위주의적 통제는 비행 및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위주의적인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과 비행에 영향을 주며(심선보, 2000),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과잉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Pettit et al., 1991).

한편, 어머니의 우울이 높으면 권위주의적 통제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우울한 부모들은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아동에게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 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심선보, 2000; 정미경, 2003; Beardslee et al., 1983)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유의하지 않으며,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집단과 정상 부모집단을 비교했을 때, 자녀들의 우울, 불안,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조수철·이정범, 1998; Anderson & Hammen, 1993; Radke-Yarrow et al., 1992; 이춘재 역, 1998, 재인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들은 우울 환자군이 아니고, 정상 어머니들로서 우울 점수가 높더라도 우울증과 비교하면 경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CES-D가 MMPI의 문항을 많이 참조하여 개발한 척도이므로 비교하여 보면, 정상인의 경우 우울점수가 약간 높은 경우에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상태라고 하였다(김중술, 1999). 즉,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우울점수가 약간 높은 경향은, 어머니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오히려 아동에게 권위주의적 통제의 양육행동을 더 적게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인 비행이나 공격성을 낮게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Murray 등(1996)이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위축된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경한 정도로서 아동의 내재화 문제까지는 표출되지 않았지만, 외현화 문제인 비행과 공격성을 더 낮게 하였다.

따라서, 좀더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좀더 자세한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어머니들의 정량적인 우울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문제

행동의 수준을 보는 것 외에, 어머니를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을 구분하고, 아동집단을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를 나누어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Dozier(1990)는 어머니 애착이 실제 경험한 내용보다는 과거 부모의 행동에 대해 성인으로서 회상하고, 이해하여, 통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니가 과거에 형성된 애착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새롭게 인식하여, 새로운 자아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을 다뤄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발생경로를 볼 때, 어머니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우울, 불안, 과보호를 매개로 내재화 문제로 가게 되며, 외현화 문제 발생경로를 볼 때, 어머니 애착이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문제로 가게 되며, 아버지 애착이 불안,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문제로 가게 된다.

5) MMPI 척도 2(Depression)에서 T점수 60-69인 경우 약간 높은 점수로 보며, T점수 70이상이면 매우 높은 점수로 우울한 정서를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내재화 문제에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불안이며, 두 번째가 어머니 애착, 세 번째가 자아존중감, 네 번째가 과보호이다. 즉,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낮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불안을 낮추는 것이며, 그 다음 어머니 자신이 어렸을 때 형성한 어머니 애착을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과보호의 양육행동을 낮추어 주는 등의 순서로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외현화 문제에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내재화 문제로, 내재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외현화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머니 애착으로 역시 어렸을 때 형성한 어머니 애착을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과 네 번째로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낮추어 주는 등의 순서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우울이 권위주의적 통제와 외현화 문제를 낮추게 하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우울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를 낮추게 하는 것이 비행이나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를 억압하여 내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은 해석이 요망되며, 아동의 억압된 문제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무관심과 방심을 하게 되면, 억압했던 문제들이 외현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정서와 우울증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울의 경중에 따라 어머니 상담과 부모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울증에 해당할 정도로 우울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우울증을 다뤄주는 상담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우울점수가 높더라도 경한 정도의 우울정서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고, 현실적인 압박감을 주는 환경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상담과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주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담과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척도를 어머니 보고용 설문지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A.A.I.(Adult Attachment Interview)(George et al., 1985; Main & Goldwyn, 1985)와 같은 면접평가도구를 사용한다면 어머니 애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양육행동척도를 아동 보고용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보고용과 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일반 아동과 문제행동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일반군과 문제군의 경로모형을 각각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9월 11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1월 14일

【참 고 문 헌】

강차연(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고인숙(1998). 부모의 특성불안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김선희·오경자·박종규·이은정(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7(1), 139-153.

김정택(1978). 특성 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연(1999). 아동기 정신병리와 어머니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인애착표상유형, 성격,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경주·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41-55.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정희(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변

- 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철웅(2002).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기청 · 홍강의(1987). 스트레스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 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6(1), 75-111.
- 심선보(200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숙경 · 이영미(1999). **내면화 증상아동의 모 양육관련 변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놀이치료연구*, 2(1), 1-12.
- 오경자 · 이혜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K-CBCL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동재 · 전성일 · 장환일(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왕혜옥(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 관련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한익(2004). **부모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정신병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 신의진 · 김혜연(1999). **아동의 정신병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표상 유형(AAI)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03-115.
- 이경숙 · 권유리 · 신의진 · 김태련(1996). **반응성 애착장애아동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성격특성, 결혼관계, 사회적 지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21-134.
- 이성희(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미(1996).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승(2000). **부모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199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의 관계**. *자연과학논문집*, 10, 89-99.
- 장휘숙(1997). **성인에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전경구 ·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전유경(2003). **장애자녀 어머니와 일반자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미경(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 전연진 ·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조수철 · 이정범(1998). **정신과 환자 자녀의 우울, 불안, 자기 개념, 그리고 가정환경의 특성에 대한 연구**.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9(1), 54-66.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덕용 · 이장호 · 전경구(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 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한민경(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이해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옥 · 김문혜(200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문화적 고찰**. *아동학회지*, 24(1), 47-59.
- 허묘연 · 오강섭 · 이시형(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 검사의 개발 연구**.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9, 198-208.
- Achenbach, T.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dam, E.K., Megan, R.G. & Tanaka, A.(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nderson, C.A. & Hammen, C.L.(1993). **Psychosocial outcomes of children of unipolar depressed, bipolar, medically ill, and normal wom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1(3), 448-454.
- Baldwin, A.L.(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 Beardslee, W.M., Bemporad, J., Keller, M.B. & Loerman, G.L.(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a major affect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25-832.
- Bellak, L., Hurvich, M. & Gediman, H.K.(1973). *Ego Functions in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NY: John Wiley & Sons.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F. & Isabella, R.(1988). Maternal, Infant, and Social-Contextual Determinants of Attachment Security. In Belsky, J. & Nezworski, T.(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ttes, B. A.(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lock, J.H., Block, J. & Morrison, A.(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 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974.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Y: Basic Books.
- Bretherton, I.(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Marris, P., Stevenson-Hinde, J. & Parkes, C.(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NY: Routledge.
- Brunnquell, D., Crichton, L. & Egeland, B.(1981). Maternal personality and attitude in disturbances of child rear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80-691.
- Burke, R.J. & Weir, T.(1978). Benefits to adolescent of informal helping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peers. *Psychological Review*, 42, 1175-1184.
- Collins, N.L. & Read, S.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F: W.H. Freeman.
- Cox, M.J., Owen, M.T., Lewis, J.M. & Henderson, V.K.(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Cowan, P.A., Cohn, D.A., Cowan, C.P. & Pearson, J.L.(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owell, J.A. & Feldman, S.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Crowell, J.A. & Feldman, S.S.(1989). Assessment of mother's working models of relationships: Some clinical implica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3), 173-237.
- Deklyen, O.M.(1992). *Childhood Psychopatholog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the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 Comparison of Normal and Clinic-Referred Disruptive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Dekovic, M. & Janssens, J.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ozier, M.(1990). Attachment organization and treatment use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7-60.
- Fendrich, N., Warner, V. & Weissman, M.M.(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Gamsa, A.(1990). Is emotional disturbance a precipitator or a consequence of chronic pain? *Pain*, 42, 183-195.
- George, C., Kaplan, N. & Main, M.(1985).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a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zan, C. & Shaver, P.R.(1992). Broken Attachments. In Orbuch, T.L. (Ed.), *Close Relationship Loss: Theoretical Approaches*. NY: Springer-Verlag.
- Holmbeck, G.N.(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60, 5-13.
- Jeon, H.J.(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Cornell University.
- Jon, B.J.(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1), 107-130.

- Kobak, R.R. & Hazan, C.(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bak, R.R., Sudler, N. & Gamble, W.(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athways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61-474.
- Kokes, R.F., Harder, D.W., Fisher, L. & Strauss, J.S.(1980). Child competence and psychiatric risk. Vol. 5: Sex of patient parent and dimensions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348-352.
- Lopez, F.G., Mauricio, A.M. & Gormley, B.(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4), 459-464.
- Luster, T. & Okagaki, L.(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공역(1996). 부모-자녀관계-생태학적접근. 서울: 학지사.
- Main, M.(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37-243.
- Marrone, M.(1988). *Attachment and Interaction*. 이민희 역(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 Murray, L., Fiori-Cowley, A. & Hooper, R.(1996). The impact of postnatal depression and associated adversity on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later infant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 2512-2526.
- Ninio, A.(1979). The naive theory of the infant and other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976-980.
- Parker, G.(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arker, G. & Lipscombe, P.(1981). Influence on maternal overprotect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8, 303-311.
- Pettit, G.S., Harrist, A.W., Bates, J.E. & Dodge, K.A.(1991). Family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83-420.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skin, A., Boothe, H., Reitig, N. & Schulterbrandt, J.(1971). Factor analysis of normal and depressed patients' memories of parent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29, 871-879.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ter, M. & Brook, R.I.(1983). Is the temporo-mandibular pain and dysfunction syndrome a disorder of the mind? *Pain*, 17, 151-166.
- Sameroff, A.J., Seifer, R. & Zax, M.(1982). Early development of children at risk for emotional disorder.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7(7), 1-72.
- Sherbourne, C.D., Wells, K.B., Hays, R.D., Rogers, W., Burnam, A.B. & Judd, L.L.(1994). Subthreshold depression and depressive disorder: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medical and mental health specialty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12), 1777-1784.
- Spielberger, C. D.(1966).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 Spielberger, C.D.(Ed.), *Anxiety and Behavior*. NY: Academic Press.
- Volling, B. L. Notaro, P. C. & Larsen J. J.(1998). Adult attachment styles: Relations with emotional well-being, marriage, and parenting. *Family Relations*, 47(4), 355-683.
- Warner, V. & Weissman, M.M.(1995). Offspring at high and low risk for depression and anxiety: Mechanisms of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6), 786-797.
- Watson, D. & Tellegan, A.(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ells, L. E. & Marwell, G.(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
- Wenar, C.(199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이춘재 역(1998). 발달정신병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Whiffen, V.E., Kerr, M.A. & Kallos-Lilly, V.(2005). Maternal depression, adult attachment, and children's emotional distress. *Family Process*, 44(1), 93-103.
- Zahn-Waxler, C., Cummings, E.M., McKnew, D.H. & Radke-Yarrow, M.(1984). Altruism, agg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young children with a manic-depressive par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236-240.